

# 그림책 서평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isual Literacy for Picture Book Reviews

민 경 록 (Kyeong-Rok Min)\*

### 목 차

- |                      |                |
|----------------------|----------------|
| 1. 서 론               | 4.1 내용 비교      |
| 2. 이론적 배경            | 4.2 그림 비교      |
| 3. 『빨간모자』의 문학 서사적 접근 | 4.3 시각적 이미지 분석 |
| 4. 그림책 『빨간모자』 분석     | 5. 결 론         |

### 초 록

도서관은 독자에게 독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표적 기관이며, 사서는 독자에게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들의 그림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서관과 사서는 훌륭한 그림책은 어떤 것인지? 유사한 종류의 다양한 도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의 도서 선택과 독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 서평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성·제공하여 독자들의 독서정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과 예술의 복합장르인 그림책 서평을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내용소개는 물론 시각 텍스트에 관한 문학적 상징성 등의 해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서는 작가의 사상과 철학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심층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시각적 문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옛 이야기 『빨간모자』를 다룬 두 작가의 그림책을 비교·분석하여 그림책 서평 작성 시 참고하여야 할 시각적 텍스트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ABSTRACT

As a public institution, it is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a library to provide readers with information about books. To provide such information to readers, a librarian should have the ability to provide satisfactory consultation and advice. As interest in picture books grow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libraries and librarians to produce and release picture book reviews on a regular basis to inform readers of what makes a good picture book, and which among similar books should they choose. Other than summarizing the content of a picture book, a good picture book review should als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ill help readers understand the reviewed book such as the literary symbolism of a book's visual texts. To this end, a librarian is required to develop visual literacy, which would enable him/her to read into the deeper meaning of the images imbued with the writer's ideas and philosophy. In light of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wo picture book versions of the story *Little Red Riding Hood*, with the purpose of helping librarians understand the visual texts that they need to refer to when writing picture book reviews.

키워드: 옛 이야기 그림책, 시각적 문식성, 그림책, 그림책 서평, 그림책의 독서지원서비스, 서평, 그림읽기  
Fairy Tale Picture Book, Visual Literacy, Picture Book, Picture Book Review,  
Reader's Advisory Services for Picture Books, Book Review, Picture Reading

\* 청주기적의도서관 관장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rosemkkr@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7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83-108,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083]

## 1. 서론

도서관은 독자에게 독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표적 기관이며, 사서는 독자에게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출판계의 흐름을 보면, 2014년 영국 출판시장 전체 매출 규모는 43억 파운드(약 7조 6천 억원)로 전년 대비 2% 하락한 반면에 아동서는 9.1% 상승하였고, 이 중 그림책은 8.7% 증가하였다(미래출판전략연구소 2015). 또한, 2014년 세계 출판시장에서 세계 2위(187억원)를 기록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중국은 출판시장의 20%를 어린이도서가 차지하고 있으며(송연옥 2015), 주지창 교수는 “유년 문학의 대명사인 도화고사(圖畵故事)는 21세기 중국 어린이문학에서 매우 크게 성장할 분야”(주지창, 김광식 2012)라고 하여 중국에서도 그림책이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서분야에서 그림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과 사서는 훌륭한 그림책은 어떤 것인지? 유사한 종류의 다양한 도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과 같은 독서 자료의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

평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성·제공하여 독자들과 독서정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sup>1)</sup>

그림책은 그림의 상징, 암시 등을 해독하며 글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를 함께 고찰할 경우 전혀 다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 서평에서는 여타의 도서와 달리 회화적 부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그림책에 익숙하지 않거나 회화적 부분의 이해가 부족한 독자들에게 이미지로 형상화된 작가의 심층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독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서는 그림책의 글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각적 문식력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이 그림책 서평을 작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각적 문식성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옛 이야기 그림책을 비교·분석하여 시각적 텍스트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그림책은 글과 그림 그리고 상호보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1) 본 연구자는 『어린이그림책 서평의 이해』(민경록 2017b)에서 서평의 역할을 ‘자료선택적·독자지원서비스적·독서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그림책 서평의 작성을 위한 권장 구성부문 및 세부항목으로 첫째, 서지적 정보(①서명, ②작가, ③번역자, ④그림작가, ⑤출판사, ⑥출판연도, ⑦면수, ⑧국제표준도서번호, ⑨가격, ⑩책표지 이미지), 둘째, 평론가 정보(⑪평론가명, ⑫평론가 직업·전공, ⑬평론제목), 셋째, 문학적 정보(⑭장르, ⑮내용, ⑯주제, ⑰등장인물, ⑱구성, ⑲배경, ⑳문체), 넷째, 예술적 정보(㉑예술적 요소, ㉒예술적 표현양식, ㉓예술적 매개체, ㉔이미지해석을 배제한 그림의 묘사·설명, ㉕예술형식의 문학적 상징성, ㉖그림의 구성), 다섯째, 형태적 정보(㉗판형, ㉘장정 및 형태적 특징, ㉙글의 유무), 여섯째, 문예적 비교정보(㉚도서관련 정보, ㉛다른 매체와의 연계, ㉜동일 작가의 작품비교, ㉝다른 작가의 작품비교, ㉞다른 작가와의 문체비교, ㉟다른 작가와의 예술향목비교), 일곱째, 평가적 정보(㊱문헌사적 가치, ㊲작품 평가·추천, ㊳평론가의 견해 및 제언, ㊴흥미독자) 등을 제안하였다.

글이 기술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와 글과 그림이 서로 보완하거나 대치되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개될 경우 상징성이 뛰어난 풍부한 서사적 작품이 될 수 있다(민경록 2017a). 이러한 그림책과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선행 연구로, 노명완과 이차숙(2002)은 전통적인 정보 소통의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문자 이상의 영상, 이미지, 기호 등으로 문식성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하며, 박소라와 김정선(2011), 이유나(2015) 등은 이러한 시각적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책의 그림 읽기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차숙(2013)은 Arnheim의 시각적 이론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이 그림책 이미지에 투영된 작가의 사상과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지도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시각적 문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가 유아·미술교육분야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도서관계에서도 그림책에 관한 독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자료 제공 및 선정 그리고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사서들의 그림책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경록(2017a)은 Arnheim의 시각적 사고이론을 기반으로 그림책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시각적 문식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림책 선택의 기본적인 정보원으로서 서평 등의 이차자료 작성을 위한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이야기의 다양한 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옛 이야기 그림책을 비교·분석하여 시각적 텍스트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배치와 균형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 진다. 특히 구비문학인 옛 이야기는 구전되는 것으로 청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많은 장르이다. 이러한 청각적 정보를 그림과 글의 조화를 통하여 표현하게 되는 옛 이야기 그림책은 그림작가가 등장인물, 상황, 배경 등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림의 구조와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매체일 것이다.

옛 이야기 그림책이란 기존의 민담, 신화, 전설, 우화를 재화하고 그림을 담아 만든 그림책(현은자, 김세희 2005)으로, 다른 장르의 그림책과 달리 이미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 있던 것을 그림 작가의 견해와 해석을 가미하여 글과 그림간의 리듬으로 재창작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칫 옛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표현함으로 인하여 독자들이 언어를 통하여 듣게 되는 경우 각자의 경험 등을 통한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해석하고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기존의 동일한 스토리에 그림 작가의 철학, 사상을 이미지로 상징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으로 재창작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 문식성은 시각문화 환경에서 모든 시각 이미지를 분석적·비판적으로 해석하는(박소라, 김정선 2011) 것으로, 언어 요소와 시각 요소가 섞여 있는 다층구조 텍스트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림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개념화하여 이를 문학적·심미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표현된 옛 이야기 그림책은 자연스럽게 문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이다. 특히 말(언

어)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던 소재, 배경, 공간 등이 시각적으로 묘사됨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결론을 유도해 내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민경록 2017a). 이를 위하여 동일한 옛 이야기를 다룬 다수의 작가들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언어적인 표현을 시각적 이미지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해보면서 시각적 상징성을 이해하고, 독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에 옛 이야기 중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 그림책 등 다른 미디어로 제작되거나 수많은 패러디물로 재탄생된 「빨간모자」의 그림책을 비교하여 시각적 이미지 읽기 및 활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빨간모자」의 문학 서사적 접근

본 연구를 위하여 「빨간모자」의 다양한 버전 가운데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림형제(Brüder Grimm)의 「빨간모자, Little red riding hood」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문학으로서의 옛 이야기를 문학적·심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빨간모자」는 대표적으로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 1628~1703)와 그림형제(Jacob Ludwig Carl Grimm, 1785~1863 & Wilhelm Grimm, 1786~1859)의 작품을 들 수 있다. Perrault의 「빨간모자, Le Petit Chaperon rouge」는 1697년에 출간되었고 이후 1812년에 Grimm형제의 「빨간모자, Das Rotkäppchen」가 출간되었다. 구비문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00여 년이라

는 시간적 흐름으로 사회적·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투영된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서유정(2015)은 이러한 Perrault와 Grimm 형제의 「빨간모자」의 내용 비교를 통하여 두 작품 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Grimm 형제의 「빨간모자」는 Perrault의 「빨간모자」와 이야기의 진행과 인물유형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윤곽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특징적이다. 빨간모자의 엄마가 할머니께 보내는 음식은 빵과 버터에서 빵과 포도주로 바뀐다. 그리고 엄마는 심부름을 보내면서 더워지기 전에 출발하고 밖에서는 몸가짐을 잘하고 한눈 팔지 말고 곧장 할머니께 가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첨가된다. Perrault의 작품과 달리 어머니의 딸에 대한 의식적인 여아교육이 실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빨간모자가 늑대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빨간모자로부터 할머니 방문에 대해 듣게 된 늑대가 이 어리고 예쁜 것이 늙은 할머니보다 더 맛있겠다고, 그러니 피를 잘 쓰면 할머니와 빨간모자 둘을 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고 치밀함 범행계획을 짜는 모습이 첨가된다. 또한 빨간모자가 숲 속에서 곧장 할머니께 가지 않고 한 눈을 팔게 된 것은 늑대의 유혹 때문이라는 점도 Perrault의 작품에는 없는 내용이다. 늑대는 빨간모자를 따라가면서 왜 예쁜 꽃도 구경하지 않고 새소리도 듣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가기만 한다고 꼬드긴다. 늑대의 말에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된 빨간모자는 잠깐 다른 길로 가서 꽃을 찾아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점점 더 예쁜 꽃을 찾으려고 하다가 더욱 더 깊이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쾌락에

눈을 뜬 젊은 여성이 점점 더 타락에 빠져드는 모습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할머니를 잡아먹은 늑대가 할머니로 변장하고 빨간모자를 속이는 장면에서는 Perrault의 작품과 달리 빨간모자는 옷을 벗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워 있는 늑대 옆에서 무서움을 느낀 빨간모자는 할머니의 큰 귀, 큰 눈, 큰 손에 대해 질문하고 큰 입에 대해서 물어 보자 단번에 잡아먹힌다. Perrault의 작품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Grimm동화 판본은 이야기가 여기에 서 끝나지 않는다. 배를 채운 늑대가 코를 골며 꿀아 떨어졌을 때, 이 소리를 들은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이상히 여겨 집안으로 들어온다. 사냥꾼은 오랫동안 늑대를 찾고 있었으며, 보아하니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쩌면 할머니를 아직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냥꾼이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가르자, 먼저 빨간모자가 튀어나오고 이어서 할머니도 살아 나온다. 빨간모자는 재빨리 큰 돌을 가져다가 늑대의 배에 채워 넣는다.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일어나려다가 몸이 무거워 쓰러져 죽는다.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 집으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얻고, 빨간모자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한 길로 다시는 절대 혼자 가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이처럼 『빨간모자』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전되어 전승되고 있으나, 언어에 의하여 전달되는 구비문학의 특수성으로 시간적이고 일회성의 성격에 따라 등장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되어 전승됨을 알 수 있다. Perrault와 Grimm 형제의 두 작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결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선과 악을 상징하는 ‘빨간모자’와 ‘늑대’라는 등장인물의 구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Grimm형제는 여기에 ‘사냥꾼’이라는 구원자를 등장시킨다. Perrault의 작품에서는 엄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빨간모자가 죽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통하여 절대적인 복종을 강하게 전달하는 반면에 Grimm형제는 기존의 비극적 결말에 그치지 않고 ‘사냥꾼’이라는 구원자를 등장시키면서 악을 상징하는 늑대를 제거하고 빨간모자와 할머니를 구원하는 해피엔딩의 결론으로 전형적인 동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론에 엄마의 당부를 다시는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빨간모자의 반성을 잊지 않고 전하면서 강한 교훈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는 그림책으로 창작된 『빨간모자』를 통하여 언어예술이며 시간적 의미예술인 옛 이야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어떻게 상징화하여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그림책 『빨간모자』 분석

옛 이야기 『빨간모자』를 그림책으로 재창작한 작품은 크게 Perrault 본을 원전으로 한 작품과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한 작품 그리고 등장인물, 구성, 배경, 상황 등을 변형한 패러디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errault 본을 원전으로 한 작품으로는 Hellensleben의 『빨간모자』, Mistral의 『빨간모자』 등을 들 수 있고,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한 작품은 Hyman의 『빨간모자』, Janssen의 『빨간모자와 늑대』, Pinkney의 『빨간모자』, 베너넷 와츠의 『빨간

모자」 등이 있다. 등장인물이나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접근한 패러디물로는 Innocenti의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모자」, Guerlais의 「늑대가 들려주는 빨간모자 이야기」, Rodari의 「빨간 모자라니까요」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예술적 요소, 표현양식 등에 따른 그림의 상징적 의미·표현적 속성과 해석·문학적 반응 등 그림의 서사적 이해를 기반으로 문학적·예술적·심미적 해석을 위하여 Grimm형제의 「빨간 모자」를 원전으로 한 Janssen의 「빨간모자와 늑대」, Rotkaeppchen」(장순란 2004) 그리고 Hyman의 「빨간모자, Little red riding hood」(이진경 2013)를 비교하고자 한다.

Janssen과 Hyman의 작품은 동일한 텍스트를 원전으로 하고 있으므로, 글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를 비교하여 시각적 이미지의 상징성을 비교하여 읽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글 텍스트의 전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그림을 통하여 서사의 핵심을 묘사하는 시각적 이미지의 상징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림의 요소와 형태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서사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두 작품의 시각적 이미지에 따른 서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Janssen의 작품은 그림의 표현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글과 그림의 결합에 따른 역동성이 뛰어나 글과 그림의 역할 관계 및 상호소통의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Hyman은 Caldecott 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경력의 그림책 작가로, 1984년에 「빨간모자」로 Caldecott Honor를 수상하였다. Caldecott 상은 1938년부터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매년 최고의 그림책에 수여하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려진다. 이처럼 회화적으로 독특하고 뛰어난 작품과 세계적으로 인정된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의 문학적·예술적·심미적 표현을 검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 4.1 내용 비교

Grimm형제 본의 「빨간모자」의 내용에 있어서는 앞에서(3절) 살펴본 것처럼 Perrault 본에서는 할머니에게 ‘빵’과 ‘버터’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Grimm형제 본에서는 ‘빵’과 ‘포도주’로 전개 된다. 또한, Perrault 본은 할머니와 빨간모자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비극적인 결말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반면에 Grimm형제 본에서는 구원자 ‘사냥꾼’을 등장시켜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구하고 악의 근원인 늑대를 죽이는 옛 이야기의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행복한 결말로 전개된다. 어린이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Perrault 본과 비교하여 동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상 도서로 선정된 두 작품 모두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하여 글 텍스트로 전개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전개과정에서 일부 추가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1> 참조).

이야기의 도입부에서는 두 곳에서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anssen의 작품에서는 “옛날 옛적에 작고 귀여운 소녀가 …”로 시작되며 여타의 「빨간모자」 작품들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 Hyman

〈표 1〉 ‘Janssen’과 ‘Hyman’의 작품 내용 분석

『빨간모자와 늑대』 / Susanne Janssen	『빨간모자』 / Trina Schart Hyman
옛날 옛적에 <b>작고 귀여운 소녀</b> 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녀를 귀여워했지만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소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 끝자락에 꼬마 아가씨 <b>엘리자벳</b> 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엘리자벳을 아주 좋아했지요. 그 누구보다 엘리자벳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할머니였어요.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빨간 모자야, 할머니께서 병이 나 몸이 허약해졌단다. 여기 <b>케이크와 포도주</b> 한 병을 갖다 드리렴. 날이 더워지기 전에 어서 다녀오렴. 한눈팔지 말고 곧장 가도록 해. …(생략).	이른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말했어요. “빨간 모자야, 이 <b>빵과 버터, 그리고 포도주</b> 를 할머니께 갖다 드릴래? 햇볕이 뜨거운 한낮이 되기 전에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넘어져 포도주 병이 깨지면 안 되잖아. …(생략).
빨간 모자가 숲 속에 들어섰을 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빨간 모자.” 늑대가 말합니다. 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b>교활한 동물</b> 인지 몰랐기 때문에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한 발 다가서며 말합니다. “빨간 모자야, <b>이 어여쁜 꽃들을 좀 봐, 여기 한가득 피어 있는 꽃들을 말이야. 왜 쳐다보지도 않니? 새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는데!</b> 너는 마치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앞만 보고 가는구나.”	한참 숲 속을 걷다 보니 빨간 모자는 조금 심심해졌어요. 바로 그때 <b>아주 교활한 늑은 늑대</b> 를 만났지 뭐예요. <b>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못된 짐승</b> 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 늑대는 “빨간 모자야, 이 예쁜 들꽃 좀 보렴. 늑은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구나. … 너는 마치 학교에 가는 것처럼 정해진 길로만 가는구나. 이곳 숲 속에서는 이 길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아름답단다.”
곧장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간 늑대는 할머니를 삼켰습니다. …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댁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여느 때와 달리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서울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할머니 댁에 왔는데.’ … “그런데 할머니, 이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입은 왜 그래요?” “너를 더 잘 잡아먹기 위해서란다!” 늑대는 이 말을 하자마자 침대에서 필쩍 튀어나와 불쌍한 빨간 모자를 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곧장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달려간 늑대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빨간 모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무서웠어요. ‘이상하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왜 지금은 무서운 걸까?’ … “할머니, 이는 또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됐단다. 왜!” 이렇게 말하고는 늑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가엾은 빨간 모자를 꿀꺽 삼켜 버렸어요!
이때 바로 집 근처를 지나가던 사냥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냥꾼은 총을 쏘는 대신 가위를 꺼내 잠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냥꾼이 우연히 할머니 오두막 집에 들렀어요. … 사냥꾼은 칼을 꺼내 재빨리 늑대의 배를 갈랐지요.
빨간 모자는 재빨리 <b>커다란 돌을 날라다</b> 가 늑대의 배에 채워 넣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대로 주저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 집으로 가져 갔고,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지고 온 케이크와 포도주를 먹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사냥꾼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사냥꾼은 빨간 모자를 번쩍 들어 안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고 안심시켰어요. 사냥꾼은 늑대 가죽을 벗겨 집으로 가져갔어요.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달콤한 버터를 바른 빵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 빨간 모자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엄마 허락 없이 길에서 벗어나 숲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라고 말입니다.	빨간 모자는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짐했어요 <sup>2)</sup> . “이제 다시는 숲길을 벗어나 돌아다니지 말아야겠어. 엄마와 한 약속도 꼭 지켜야지.” 그래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약속만은 지킨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안녕하세요?”, “예, 그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2) 아동문학에서는 사건의 발단, 모험(여행), 귀향의 패턴을 통하여 성장을 표현하는데 Hyman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문학적 패턴을 그림의 묘사로도 정확하게 따르고 있음.

작품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 끝자락에 꼬마 아가씨 엘리자벳이 살았어요.”로 시작되면서, ‘빨간모자’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벳’인데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빨간 망토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빨간모자’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내용 전개의 관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옛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소녀, 소년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구비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청자(聽者)들을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로 이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Janssen은 이러한 옛 이야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Hyman은 소녀에게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특정 인물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작가가 이야기 전개의 흐름을 설명하는 장치일 것이다. Hyman은 ‘빨간모자’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던 자신의 유년기의 추억을 본 작품에 이입하고 있음을 밝힌 바<sup>3)</sup> 있다. ‘빨간모자’의 이름이 ‘엘리자벳’이라는 특정의 소녀임을 알려주고, 이 소녀가 ‘빨간모자’ 이야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글 텍스트 이외의 그림으로 보완하여 밝힘으로써 이 작품은 작가의 즐거운 회상과 추억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책 ‘빨간모자’의 회화적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Hyman은 작가가 유년기 행복했던 독서의 추억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Janssen의 전개와는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Hyman의 의도를 그림으로 어떻게 시각화하여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는 음식도 Janssen의 작품에서는 ‘케이크’와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으나, Hyman의 작품에서는 ‘빵, 버터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내용은 독자들에게 작품 전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보여 진다. 『빨간모자』 Perrault 본에서는 빨간모자가 할머니에게 ‘빵’과 ‘버터’를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Grimm형제 본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Janssen이 Grimm형제 본의 내용을 충실하게 글 텍스트로 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Hyman은 ‘빵, 버터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작가가 Perrault과 Grimm형제의 작품을 이미 모두 읽었다는 것과 그만큼 『빨간모자』 이야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작가가 유년기에 『빨간모자』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였으며, 유년기에 엄마가 자주 읽어주었던 행복한 추억을 기반으로 마치 자전적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입부의 위의 두 내용은 작품 전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개와 절정의 부분에서는 두 작품 간의 다른 점을 크게 찾아볼 수 없이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구출된 빨간모자가 늑대의 배에 돌을 넣는 장면을 Janssen의 작품에서는 글과 그림으로 그대로 기술하고 있으나, Hyman의 작품에서는 그림

3) Trina Schart Hy-man and Little Red Riding Hood. [cited 2017. 5. 29.]  
 <<http://courses.wcupa.edu/johnson/352/hyman-lrrh2.html>>



으로 묘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글 텍스트를 통하여 간략하게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갈랐지요.”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늑대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결과’보다는 악의 축인 ‘늑대’를 응징한 용감한 보호자와 같은 사냥꾼의 역할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Hyman은 사냥꾼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자녀)를 보호하는 든든하고 용감한 아빠의 모습을 투영하여 담아내고 있다. 또한, 빨간모자가 엄마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관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빨간모자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두 작품의 글 텍스트를 비교하면 Janssen은 Grimm형제 본의 이야기 전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반면에 Hyman은 도입과 결론에서 원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작품에 관한 해석과 관점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도입과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개와 절정 부분의 이야기 전개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다. 반면에 그림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글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 그리고 상호간의 보완작용을 통하여 의미가 전달되는 것으로, 문체로 내용을 전개하는 동시에 사물, 대상, 형상 등에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이입시켜 표현하므로 작가의 철학, 해석 등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작품은 글 텍스트를 통한 내용의 전개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림에 따른 서사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책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상술한 내용을 문학적 정보의 부문에서 줄거리로 간략하게 소개한 후, 문예적 비교정보 부문에서 도서

에 관련된 정보, 다른 작가의 동일 작품과의 비교 그리고 평가적 정보 부문에서의 문헌사적 가치 등의 세부항목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의 작품에 관한 이해를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Hyman의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관점에서 전개되었다는 저술동기 등에 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독자들이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그 포인트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그림으로 묘사된 장면과 서로 다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통하여 그림 작가들이 전하고자 하는 『빨간모자』에 관한 해석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동일한 이야기를 각각 그림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사상을 이미지화한 것을 기반으로 시각적인 이미지 읽기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 4.2 그림 비교

두 작품의 글 텍스트를 비교하여 서사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Janssen의 작품은 Grimm형제의 『빨간모자』에 충실하게 전개를 하였고, Hyman은 『빨간모자』에 관한 작가의 유년기 문학적 추억의 흥미를 토대로 자전적 성향을 이입하여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림의 표현을 통한 서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비문학이 話者의 구술의 방식, 제스처 등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의 변화를 주듯이 그림책으로 표현할 때는 동일한 내용이 어떻게 이미지화하였는가에 따라 서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두 작품에서 그

림작가들이 각 장면을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시각적인 상징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그림으로 묘사된 장면과 다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통하여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의 컬러, 배치, 구도 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글과 그림의 관계에 있어서 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이미지화하였는지, 그림으로 묘사하지 못한 것은 글 텍스트에서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그리고

상호간 보완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표 2〉 참조).

#### 4.2.1 그림으로 묘사된 공통의 장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은 대략 아홉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전개 상 극적인 부분에서는 2면 이상의 그림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림으로 묘사된 이야기 전개의 큰 흐름은 이야기 발단('엄마의 심부름과 당부'), 전개와 절정('늑대와 만남-늑대에게 잡아먹히는 할머니와 빨간

〈표 2〉 'Janssen'과 'Hyman' 작품의 그림 비교

	『빨간모자와 늑대』(Susanne Janssen)	『빨간모자』(Trina Schart Hyman)
그림으로 묘사된 공통 장면		
도입	(엄마의 심부름) 엄마가 빨간모자에게 심부름을 보내며 당부하는 장면	
전개	늑대와의 만남 (숲) _ 늑대가 위험한 존재임을 모르는 빨간모자가 늑대의 꾀에 빠져 숲 속 구경 _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는 늑대	
절정	늑대와의 만남 (할머니 집) _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고 빨간모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잡아먹음	
결론	사냥꾼의 등장: 늑대를 죽이고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구함 할머니와 빨간모자가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빵, 포도주)을 함께 먹는 장면	
그림으로 묘사된 작품별 다른 장면		
프롤로그	표지: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있는 모습 (표지 앞·뒤 그림이 연결되어 있음)	앞표지: 심부름을 가는 빨간모자 뒤표지: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빨간모자
	표제면: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빨간모자 (빨간모자가 들고 있는 바구니가 비어 있음)	표제면 맞은편 그림. 책을 읽고 있는 소녀와 주방에 있는 엄마의 뒷모습
도입	글 텍스트로 기술하고, 그림 묘사는 생략	할머니가 빨간모자를 선물하는 장면(빨간모자의 이름이 ‘엘리자벳’이라는 것을 알림) <sup>4)</sup>
절정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잡아먹고 굶아 떨어진 늑대	할머니 집에 도착한 빨간모자
결론	사냥꾼이 늑대의 배에서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꺼내는 모습	사냥꾼이 늑대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
	빨간모자가 늑대의 배에 돌을 채워 넣는 장면	늑대를 죽인 후 사냥꾼과 할머니, 빨간모자가 함께 있는 장면
에필로그	-	심부름을 마친 빨간모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뒤표지의 그림과 동일)

4) 소녀의 이름이 '엘리자벳'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글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다.

모자'), 결론('사냥꾼의 등장-늑대의 죽음-심부름 완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은 엄마가 빨간모자에게 심부름을 보내며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장면이다. 본 장면에서는 두 작품 모두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하고 있음을 그림의 묘사 <그림 1·2>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 Perrault 본에서는 빵과 버터를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전개되지만 Grimm형제 본에서는 빵과 포도주로 바뀐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는 빨간모자의 바구니에 빵과 포도주를 그려 넣음으로 해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글과 그림 텍스트에서 동일하게 기술·묘사하고 있다.

Janssen의 작품은 글 텍스트로 전달되어지는 내용보다 그림으로 전하여지는 내용이 훨씬 역동적으로 느껴진다. 글 텍스트는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하는 다른 작품들과 유사하게 전개되는 반면에 그림은 색, 구도, 배치, 균형 등의 조합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괴기하고 공포스러운 위협적인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독특한 그림 구도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성격,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배경(집안의 풍경)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 머리(얼굴)는 지나치게 크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 몸은 작게 그리거나 거의 생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독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편함과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한다. 그림으로 읽혀지는 등장인물('빨간모자')의 성격은 고개를 한껏 꺾어 위로 향한 얼굴과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는 시선 등으로 반항적이고 호기심이 강한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옛 이야기에서 그려지는 빨간모자의 성향과는 다른 해석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책의 그림은 기호학적 측면에서 그 자체가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의 위치 등으로 의미를 전하기도 하는데,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문화권에서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왼쪽에, 독자에게 새롭고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왼쪽에 위치한 인물은 안정감



<그림 1> 'Hyman' 『빨간모자』  
(이진경 2013)



<그림 2> 'Janssen' 『빨간모자와 늑대』(장순란 2004)



<그림 3> 'Janssen' 『빨간모자와 늑대』(장순란 2004)

을 주는 반면,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은 위험이나 모험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다(현은자, 김세희 200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부모, 선생님 등과 같은 안정적이고 지루하게 그려지는 존재는 왼쪽에 그려 넣고, 낯설고 새로우며 위험한 모험으로 가득 찬 세계를 동경하는 인물을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Janssen과 Hyman은 빨간모자는 오른쪽, 엄마는 왼쪽에 그려 넣어 이러한 그림읽기의 문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책에서의 시점(視點)은 독자에게 대상을 바라보는 지점을 알려주어, 그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사람과 사물간의 다양한 관계를 알려줌으로써 대상 간의 힘, 통제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한다(현은자, 김세희 2005). Janssen과 Hyman의 작품에서도 등장인물의 시점(視點)을 통하여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Janssen의 작품에서는 엄마와 빨간모자가 한 장면에서 그려져 있으면서도 서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서 상대적인 거리감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반면에 Hyman은 그림의 중앙에 엄마와 빨간모자를 두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도록 묘사하여 모녀간의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엄마가 위에서 아래로 빨간모자를 바라보도록 하여 부모의 위엄을 표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 장면에서 다루는 늑대와 빨간모자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림의 분위기는 두 작품이 매우 대조적이다. 배경을 묘사함에 있어서 Janssen은 최대한 배제하고 등장인물 중심으로 클로즈업하여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Hyman은 빨간모자와 엄마를 둘러싼 집안의 배경을 상세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함으로써 집은 숲(세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Janssen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야 한다'는 엄마의 당부를 글 텍스트보다는 그림 텍스트로 강조하고 있는데, 엄마가 집 밖 세상(숲)의 위험(늑대)을 설명하는 그림을 양면 펼침면 편방(扁方)의 판형으로 길게 묘사하고 있다(〈그림 3〉참조). 이 장면에서 엄마와 빨간모자는 왼쪽 면에 그려놓고 오른쪽 면에는 숲과 늑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색과 구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공간을 이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늑대가 있는 숲을 어둡게 묘사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느껴진다. 이때 엄마는 팔짱을 낀 모습을 통하여 방어적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반면 빨간모자는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늑대가 있는 숲 쪽을 힐끔거리며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색의 표현에 있어서는 Hyman은 다양하고 밝은 색으로 집안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Janssen은 어두운 색상의 명암으로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Janssen은 과감한 배경 생략과 그림의 배치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무작위로 배열되어 독자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두 작품은 구도, 공간, 배치, 색, 비율, 시점 등의 그림으로 읽혀지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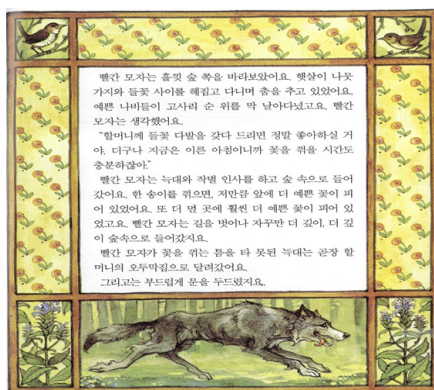
두 작품 동일하게 인물을 묘사함에 있어 엄마는 왼쪽, 빨간모자는 오른쪽에 두고 있으며, Janssen의 작품에서는 양면 펼침면 편방(扁方)의 긴 판형에 두 인물을 좌우의 각 끝에 배치하고 있어 둘의 심리적 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등장인물의 특이한 구도와

독특한 시선 처리로 일반적인 모녀의 모습보다는 괴기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Hyman은 한 면에 두 인물을 모두 그려 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묘사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심부름을 가던 빨간모자가 숲에서 늑대를 만나 숲을 구경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선과 악을 상징하는 빨간모자와 늑대의 첫 만남으로 이야기 전개의 발단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인물의 묘사를 통하여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으로 위험과 경계의 대상이 되는 '숲'의 묘사를 통하여 두 작품이 「빨간모자」를 풀어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두 작품 모두 빨간모자는 왼쪽에 늑대를 오른쪽에 그리고 있다.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Janssen은 늑대의 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얼굴을 정면으로 그려 날카롭고 위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빨간모자를 옆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날카로운 늑대의 눈빛과 달리 빨간모자의 눈은

불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물(상황,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미성숙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빨간모자를 숲으로 유인한 후에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는 늑대의 모습을 물 위로 비춰지게 그리면서 늑대의 형태와 윤곽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속도감과 긴박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Hyman의 작품에서는 달려가는 늑대의 모습에서 전혀 속도감을 느낄 수 없고, 위협적인 요소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느고 기운없는 개처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늑대의 진행 방향과는 달리 늑대의 눈은 왼쪽면에 있는 빨간모자 쪽을 흘깃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의 늑대의 눈빛은 날카롭거나 교활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숲에 혼자 남겨져 있는 빨간모자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더욱이 늑대를 그린 그림 위로는 글 텍스트가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하단 부분에 늑대를 그려 넣어 기존의 「빨간모자」에 등장하는 늑대의 캐릭터가 불편하고 버겁고 힘들어 보인다는 듯한 느낌을 준다(<그림 4·5>).



<그림 4> 'Hyman' 「빨간모자」  
(이진경 2013)



<그림 5> 'Janssen' 「빨간모자와 늑대」  
(장순란 2004)



늑대를 이렇듯 온순한 강아지처럼 묘사한 것은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자신의 개(티피)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설명<sup>5)</sup>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글과 그림의 상호간의 관계를 통한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배경이 되는 숲도 어둡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 아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과 새 등지의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새, 나비, 꽃, 식물들 사이로 찬란하게 비춰지는 햇살에 이르기까지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세상이 위험하기만 공간이 아닌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활동적인 곳으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Janssen의 작품에서 두 캐릭터를 선과 악의 상징으로 묘사한 것과 달리 세상을 먼저 경험한 인생의 선배이자 동료와 같은 느낌마저도 줄 수 있다.

이렇듯 전개 부분의 전혀 상이한 분위기의 그림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 전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늑대가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잡아먹는 장면이다. 이야기 전개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인 만큼 두 작품의 그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Janssen은 난폭하고 잔인한 늑대 <그림 6>을 극대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늑대를 표현하는 형태적인 측면의 묘사뿐 아니라 색, 구조, 배치 등으로 강하게 전달된다. 날카로운 이빨을 화면 가득히 크게 부각하고, 부릅뜬 눈과 커다란 입을 화면 전체에 그려 넣었으며, 이러한 이미지의 표현뿐 아니라 색과 구도를 통하여 위험, 공포, 두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에도 빨간모자는 여전히 고개를 한껏 꺾고 정면이 아닌 다른 쪽을 흘깃 바라보고 있어 늑대를 두려워하는 표정보다는 오히려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늑대를 통한 두려움은 오히려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그림으로 빨간모자가 늑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Hyman은 여전히 늑대를 늑고 힘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나, 시점(視點)을 위에서 아래로 빨간모자를 바라보게 묘사함으로써 세상



<그림 6> 'Janssen' 『빨간모자와 늑대』(장순란 2004)

5) 작가의 작품에 관한 인터뷰에서 제공된 정보. 앞 절(4.1)에서 설명.

의 경험이 더 많은 어른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진다. 또한 그림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Hyman은 빨간모자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끝나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할머니 집 거실의 벽시계를 통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빨간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5분, 사냥꾼이 늑대를 죽이고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구하는 장면에서는 11시 20분, 사냥꾼이 돌아가고 할머니와 빨간모자가 엄마가 주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12시 5분을 알려주며 시간의 경과를 묘사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햇볕이 뜨거운 한낮이 되기 전”이라는 엄마의 당부 잘 지켰음을 되새겨 주기도 한다. 이는 글과 그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그림책 서평에서는 이러한 장치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독자들이 그림을 유의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으로 두 작품이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errault 본에서는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 반면에 Grimm형제 본에서는 구세주인 사냥꾼의 등장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두 작품의 글 텍스트의 내용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그림 텍스트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Janssen의 그림은 모든 그림들이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등장인물의 얼굴과 표정에 주력하여 구도, 배치, 색, 시점 등을 통하여 독특하게 전하고 있다. 이야기의 진행과 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불안감, 공포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글 텍스트를 통하

여서는 그저 상황을 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작품에서는 그림 작가의 시각 이미지적 비유와 은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상징성의 요인으로는 놀랍고 섬뜩할 정도의 파격적인 비대칭의 대담한 구도, 등장인물들의 독특한 시선 처리, 초점과 시점의 파격적인 변화 그리고 비율을 상실한 몸체 등의 그림을 통하여 침울함과 절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미술 작품에서는 형태, 방향, 위치와 같은 표현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연적, 가변적으로 보여 허약해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상 아랫부분이 더 무거운 무게를 가져야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균형이 깨질 경우 불안정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Hyman의 작품에서는 모든 장면을 마치 미술 액자 속에 그려 넣듯이 사각의 프레임 안에 등장인물을 중심에 두고 묘사하고 있다. 뚜렷한 외곽선과 풍부한 색감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깊이 있는 표정 묘사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찾기 어렵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림들이 빨간모자를 통하여 또 다른 서사를 그려내고 있다.

그림책 서평의 작성 시 상술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작가의 상상력을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과 그림의 회화적 표현양식을 문학적·심미적으로 상징화한 해설적 정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술적 정보부문의 예술적 요소, 예술적 표현양식, 예술형식의 문학적 상징성과 그림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과 문예적 비교정보부문의 다른 작가와의 예술향목 비교 등에 관한 문예적 상징성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그림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글과 그림의 조화와 시각적 경험, 예술적 구성 등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4.2.2 그림으로 묘사된 작품별 다른 장면

두 작품에서 그림으로 묘사된 장면 중 다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장면은 프롤로그, 도입, 결론, 에필로그 부분이다. 특히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표지와 표제면 그리고 결론 세 부분이 이 작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Hyman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표지와 표제면 그리고 결론 부분의 그림을 통하여 다른 작품과의 구성에서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표지의 그림은 심부름을 위하여 할머니 집으로 가는 ‘빨간모자’를 묘사하고 있으며, 뒤표지의 그림에는 심부름을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빨간모자’의 뒷모습을 그리고 있다. 동일 인물이지만 후자는 내면적으로 ‘성장’한 빨간모자이다.

작품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표지의 그림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지’ 그림을 보면 Janssen의 작품에서는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함께 마주 보고 있는 장면이 앞·뒤 표지의 그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8〉 참조). 이 장면은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으나 Janssen의 『빨간모자』가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Perrault 본에서는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모두 늑대에게 잡혀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없다. 그러나 Grimm형제 본에서는 사냥꾼의 등장으로 늑대가 죽고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Janssen의 작품은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하고 있음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독자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Hyman의 작품에서는 앞 표지에서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 빨간모자가 할머니 댁으로 심부름을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뒤 표지에서는 심부름을 마친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언뜻 보면 앞뒤표지의 그림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앞에서 바라본 모습과 뒤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 장면과 동일하게 그려진 장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Hyman' 『빨간모자』  
(이진경 2013)



〈그림 8〉 'Janssen' 『빨간모자와 늑대』  
(장순란 2004)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풍부한 서사를 전하는 것으로, 해석학적 순환의 읽기<sup>6)</sup>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실적인 그림의 묘사를 통하여 빨간 모자가 들고 있는 바구니가 앞 표지에서는 빵과 포도주 등이 들어 있으나 뒤 표지의 그림에는 바구니가 비어 있음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다. 뒤표지의 그림은 원근법을 활용하여 대각선의 점점 위치에 ‘빨간모자’를 그려 넣어 그림에 깊이감을 주는 동시에 독자의 초점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까이에 있는 숲은 진한 색상으로 상세하게 세부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멀리 있는 마을과 ‘빨간모자’는 더 밝은 색상으로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와 색상으로 심부름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빨간모자’의 감정 및 분위기에 관한 것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

표제면의 그림은 Hyman의 작품에서는 작가가 이 작품을 이끌어 가는 관점을 추측할 수 있다. 작가는 유년기에 『빨간모자』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였고, 3~4살 경에 엄마가 『빨간모자』를 읽어 주었을 때의 장면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작가는 『빨간모자』를 통하여 그녀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마치 자화상처럼 이 작품을 저술하였다<sup>7)</sup>고 한 바 있다. 작가는 표제면에 ‘책을 읽고 있는 소녀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때 소녀가 읽고 있는 책의 표지

는 Hyman 작품의 표지와 동일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sup>8)</sup> 『빨간모자』를 읽고 있는 소녀의 상상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이는 여타의 『빨간모자』 작품의 구성방식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롤로그(prologue)적 장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입부 ‘옛날 옛적에 살고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를 Janssen은 글 텍스트로 기술하고, 그림의 묘사는 생략하였다. 반면에 Hyman은 할머니가 빨간모자가 달린 망토를 선물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글 텍스트로는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 끝자락에 꼬마 아가씨 엘리자베트가 살았어요.’라고 기술하면서 소녀의 이름을 거론하였다. 이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옛 이야기에서 주로 등장인물의 이름을 소녀, 소년, 착한 아이 등으로 표현하고 이름을 생략하는 대신에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작가가 이 작품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고, 글 텍스트를 통하여 강하게 보완 설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본 장면의 그림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따라서 Hyman의 작품에서 본 장면은 글과 그림의 상호보완에 따른 작품 해석

6) 해석학적 순환의 읽기는 글에서 그림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림책 읽기의 기본적 방법이다. 이미지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처음의 전반적 느낌으로 시작하여 세부사항을 살펴보는 것, 좀 더 심오한 이해와 함께 전체로 돌아오는 것 등등이 무한적으로 일어나면서 진정한 해석학적 활동을 하도록 해준다(테레사 콜러머, 그림책의 미학, 45-46).

7) 작가의 인터뷰 내용 앞 절(4.1)에서 설명.

8) Janssen의 작품에서는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가 모두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Hyman의 작품에서는 글 텍스트는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그림 텍스트에서는 1인칭 주인공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확대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 Janssen의 작품에서는 빨간모자가 늑대의 배에 돌을 채워 넣는 장면은 Grimm 형제 본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Perrault 본과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인다. 또한, Janssen의 작품에서는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을 통하여 심부름을 완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빨간모자가 이후 엄마의 심부름을 위하여서는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잘 따라야 하겠다는 다짐은 글 텍스트를 통하여 기술하고 그림으로는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Hyman의 작품에서는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함께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추가하여 그려 넣고 있으며, 이때 글 텍스트를 통하여 엄마의 당부를 명심하겠다는 빨간모자의 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늑대의 배에 돌을 넣는 장면은 Hyman의 작품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모자」를 바라보는 두 작가의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 Janssen은 '사냥꾼이 늑대의 배에서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꺼내는 장면'과 '빨간모자가 늑대의 배에 돌을 채워 넣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원전의 콘텐츠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만, Hyman은 Grimm 형제 본의 대표적인 결론 부분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대신에 사냥꾼, 할머니, 빨간모자가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여 마치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Drewermann의 심층심리학적 해석에 따르면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르는 것은 외부에서 중립적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즉 빨간모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신분석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태희 2013)고 하였다. 그런데 Hyman의 작

품에서는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르는 장면'을 그림 묘사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사냥꾼'을 원전에서 바라보는 '정신분석가'로 보는 것이 아닌 작가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자상하면서도 용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Janssen은 Grimm 형제 본의 원전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반면에 Hyman은 작가의 유년기의 행복했던 독서 추억을 반영한 이야기 속으로의 작가의 추억 여행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각 장면의 그림을 상세히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져 보이며, 본 작품의 선과 악의 절대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빨간 모자와 늑대를 묘사한 그림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각 그림의 시각적 이미지 분석을 통한 작품의 해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 4.3 시각적 이미지 분석

#### 4.3.1 인물

옛 이야기의 특징 중에는 선과 악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통하여 권선징악을 전하고 있다. 「빨간 모자」의 작품 속에는 빨간 모자와 늑대라는 캐릭터를 통하여 선과 악의 대비를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상징인 빨간 모자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한 모습과 '악'의 상징인 늑대는 무섭고 교활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묘사될 것이다. 두 작품 모두 글 텍스트를 통하여 전해지는 분위기는 전형적인 옛 이야기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림으로 묘사된 두 캐릭터의 이미지는 전혀 상반되게 그려지고 있다.

Janssen의 작품에서는 '옛날 옛적에 작고 귀

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으며, Hyman은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꼬마 아가씨 엘리자벳이 살았습니다. 누구나 엘리자벳을 아주 좋아했지요.'로 시작하고 있다.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빨간 모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글 텍스트와 달리 그림으로 묘사된 빨간 모자의 모습은 두 작품에서 전혀 다르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인물을 묘사하는 구도와 비율을 통하여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전하고 있다.

Janssen은 그림의 구도가 매우 특이하다. 엄마와 빨간 모자의 머리가 지나치게 크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 몸은 작게 혹은 거의 생략되어 독자로 하여금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감 등을 조성하게 한다. 반면에 테이블 등 주변의 소품은 정상적(평범하게)으로 묘사하거나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등장인물을 페이지 면의 2/3 이상 혹은 3/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화면 가득 인물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체의 비율에 있어서는 2/3 이상을 머리와 얼굴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고 있다. 불균형한 신체의 비율에서 오는 불편함을 전달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시선처리 또한 매우 불안하다. 등장인물들이 정면을 바라보지 않거나 얼굴은 정면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시선을 처리함에 있어서 왼쪽이나 위쪽을 바라보게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Janssen은 등장인물 묘사를 글 텍스트에서 전하는 내용과는 매우 다른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빨간 모자 이야기에서 선과 악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늑대의 묘사를 비교해 보자.

Janssen은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 발톱 그리

고 눈빛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전하고 있다. 불안하고 항상 다른 곳을 응시하는 빨간 모자와 달리 늑대의 얼굴은 정면으로 묘사하고, 교활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늑대의 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Hyman의 작품에서는 늑대와 빨간 모자가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Janssen의 작품에서는 함께 만나는 장면에서조차도 늑대의 손만 등장하다든지, 혹은 빨간모자의 눈을 명확하게 그려넣지 않고 불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Hyman이 묘사하는 늑대는 마치 늑고 지친 커다란 개처럼 묘사하고, 빨간 모자와 함께 서로 눈을 마주하도록 하여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단 늑대를 빨간 모자보다 크게 그려 늑대의 힘이나 위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격적이기보다는 삶의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어른으로서의 느낌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컬러에 있어서도 Janssen의 작품에서는 색의 표현을 최소한으로 하는 대신 구조, 배열, 균형 등을 다양하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불안감, 호기심 등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글 텍스트에서 기술되고 있는 빨간모자의 성향이나 성격 등과 그림으로 묘사된 빨간 모자는 전혀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공간의 구분에 있어서도 빨간모자와 늑대가 있는 곳을 그림의 구도를 통하여 교묘하게 선과 악의 공간으로 이원화하여 처리(〈그림 3〉)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2 공간

본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가 되는 중요한 공간은 '숲'이다. 이 이야기는 빨간 모자가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에 빵과 포도주(버터)를 가져다 드리는 도중에 늑대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 발단의 공간이 되는 늑대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숲'인 것이다. 숲은 빨간 모자가 할머니 댁에 심부름을 가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 사건 발단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어린이 문학 작품에서 심부름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주변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스스로 해결하고 완수함으로써 성장을 의미하는 주제로 자주 활용된다. 본 작품에서도 빨간 모자는 엄마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숲이라는 방해 요인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심부름을 완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즉 숲은 빨간 모자와 같이 어리고 순수한 어린이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장소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받고 자라는 시기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시기의 '성장'을 의미하는 장소로서의 의미일 것이다.

이에 본 작품에서는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가정'과 위험과 세상을 상징하는 '숲'의 공간으로 크게 이분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빨간모자'라는 등장인물도 '숲'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빨간 모자와 '숲'을 다녀온 이후의 빨간 모자로 나누어 어둡고 깊은 숲의 세계를 경험한 성장한 캐릭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숲'을 Janssen과 Hyman은 시각적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Janssen은 숲을 묘사함에 있어서 식물과 동물 등 생명의 존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공포감을 주는 어두운 공간으

로 묘사하고 있다. '숲'은 엄마('어른'을 상징)가 빨간 모자('어린이'를 상징)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던 '세상'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빛이라고는 없이 어둡게 음영처리되어 그 속을 알 수 없어 더 큰 공포를 주는 공간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반면 Hyman의 작품에서는 전혀 다르게 숲을 묘사하고 있다. 생명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생동력 있는 공간으로 묘사된 것이다. Hyman이 그리는 숲은 식물이 도처에서 자라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신선하고 새롭고 아름다우며 뭔가 흥미로울 것 같은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가득한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다. 초록을 머금은 나무와 꽃과 같은 식물들과 나비, 새, 곤충들이 생존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다. 이러한 동식물의 성장을 지원하는 햇빛은 온 숲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숲을 공포스럽고 위험한 공간이 아닌 온갖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성장하는 생동력이 넘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전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숲 묘사의 상반된 그림을 통하여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Janssen은 숲의 이미지를 원본에서의 상징성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반면에 Hyman은 긍정적인 측면의 호기심이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하여, 두 작가가 원전의 작품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또한 배경인 숲과 등장 캐릭터인 빨간 모자와 늑대를 묘사함에 있어 구도, 공간 배치, 색, 비율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숲을 배경으로 하고 전개되는 장면에서

도 Janssen은 배경은 최대한 생략하고 어두운 색으로만 표현을 하거나 등장인물을 화면의 2/3 이상으로 묘사하여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 반면에 Hyman은 숲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숲을 표현하는 색조의 사용에 있어서도 밝은 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숲 한가운데 쏟아지는 빛은 숲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는 두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빨간 모자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빨간모자’ 이야기를 현대의 시공간으로 옮겨와서 그려낸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서애경 2013)는 원전에서 표현한 숲을 대신하여 험난하고 화려한 광고판 가득하고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와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수많은 사람들, 위험스럽고 성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온갖 간판들, 영어·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 등이 뒤섞인 상품들이 가득한 쇼핑몰 등과 뒷골목의 음산한 풍경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것은 불량배를 해치워준 친절을 가장한 위험스러운 늑대와 같은 젊은 남자 등으로 그려내고 있다. 공간과 캐릭터에 관한 해석을 현대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Janssen과 Hyman의 비유적인 표현에 비하면 훨씬 노골적으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Janssen과 Hyman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공간인 ‘숲’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 글 텍스트로 전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시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전달하는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그림책을 읽음에 있어서는 그림 작가의 사상을 상징화한 이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4.3.3 플롯

구비문학에서는 화자의 구연의 방법과 억양, 표정 등의 언어를 통하여 재연되고 전달되는 것으로, 이를 그림책으로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각과 청각으로 부차적으로 표현되던 것들을 배경, 소품 등을 시각화 한 것으로 대체하여 표현되어 진다. 이로 인하여 상징화된 회화적 이미지의 다양한 버전의 옛 이야기 그림책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 배경,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책에서는 그림 작가가 이러한 사항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책을 읽는 독자들은 등장인물 뿐 아니라 배경을 세심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Hyman의 작품에서는 할머니 집 거실에 걸려 있는 패종시계를 통하여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뿐 아니라 빨간모자가 시간 내에 심부름을 완수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Janssen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배경을 최대한 생략하고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어 묘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표정, 시선처리, 구도 등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에 Hyman은 배경을 풍성하고 상세하게 묘사하여 어린이들에게 가정, 학교의 울타리 너머에도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책 표지 그림에서 Janssen의 작품에서는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함께 마주보는 장면을 그려넣음으로 해서 Grimm형제 본을 원전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구원자인 사냥꾼의 등장으로도 이를 지시하고 있다. 특히 빨간모자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 Perrault 본에서는 빵과 버터가 들어 있고, Grimm형제 본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두 작품에서는 그림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Janssen의 작품에서는 그림의 요소와 표현을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든 장면을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듯이 등장인물의 얼굴과 표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도와 배치를 독특하게 전하고 있다. 즉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불안감, 공포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글 텍스트를 통하여서는 그저 상황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그림을 통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배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내용 전개를 글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위하여서는 등장인물들의 파격적인 비례 대칭 구조와 정면을 피하는 독특한 시선 처리, 배경과 등장 인물간의 표현에 있어서의 대담한 구도, 등장인물들의 초점과 시점의 파격적인 변화 그리고 상체와 하체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의 비율을 상실한 몸체 묘사 등을 통하여 침울하고 파격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간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구도가 아닌 파격적인 나누기와 어두우면서도 투박한 그림 표현과 색채의 표현은 어두운 분위기를 충분하게 전한다. Janssen은 이러

한 시각적 해석을 충분히 그림에 녹여 넣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글 텍스트가 전하는 것 이상의 해석을 전하고 있다.

반면에 Hyman의 작품에서는 모든 장면을 마치 장식적인 효과의 액자와 같은 사각의 프레임 속에 인물과 배경 등을 디테일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의 외곽선을 뚜렷하게 처리하고 다양하고 밝은 색을 통하여 등장 인물들의 깊이 있는 표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액자의 사진을 통하여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통하여 작가의 자전적 작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두 작품에서는 동일하게 전개되는 글 텍스트와 달리 시각적 플롯의 관점에서는 전개의 과정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상이한 표현의 방식에 따른 풍부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해설적 서평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4.3.4 형태적 특징

Janssen은 가로판형에 등장인물을 크게 그려 넣고 배경은 최대한 생략하고 있다. 심지어는 등장인물의 얼굴이 페이지면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가 생략되는 장면도 있다. 이는 판형을 통하여 '빨간모자'가 자신의 공간에 대한 답답함을 상징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한정된 공간 혹은 세계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특히 본문의 마지막에 빨간모자와 할머니가 모든 일은 겪은 후에 함께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는 처음으로 등장인물들이 바라보며 마주 앉아 있으며, 눈을 생략하지 않고 그려 넣고 있다. 그리고 구도,

배치, 크기 등이 일반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고, 화면의 하단에 그려져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이 장면은 본 작품 전체에 걸쳐 가장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그림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이야기의 발단-전개-절정-결론 과정 중 각 구성에서 중요한 장면에서는 가로 판형임에도 좌우의 양 면을 하나로 연결하여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양쪽의 펼침면으로 가득하게 글 텍스트 없이 그림만으로 구성된 화면에서 독자는 그림에 충분히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는 작가가 독자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장면이나 상황을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Hyman은 일반적인 판형의 그림책에 안정적으로 등장인물과 배경을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장면을 사각의 프레임 안에 그림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답답함보다는 마치 액자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추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 5. 결 론

그림책은 글과 그림 그리고 상호간의 리듬으로 문학적·예술적·심미적인 기능을 전하는 통합적 장르이다. 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그림으로 대체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글 텍스트로 표현하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글과 그림의 상반되는 진행으로 문학적·심미적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림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훌륭한 그림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사서는 그림책 서평을 작성·제공하여야 하며, 사서는 그림의 해석학적·사회학적 지식을 토대로 상징적인 문학적 내용을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흥미를 느끼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독서지원서비스의 측면에서 서평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책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림은 표면적으로 묘사된 그대로의 해석에서 더 나아가 작가의 사상과 의견을 상징화한 심층적 구조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그림의 각도와 배치, 색과 배경, 등장인물의 구조 등 시각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각 문식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의 시각 문식력 향상을 위하여 언어적 문학작품인 옛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재구성되면서 작가의 의도를 시각적 이미지로 상징화되는 과정 그리고 동일한 원전을 다룬 다른 작가와의 그림을 비교하여 그림 작가가 해석하는 작품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Grimm형제 본의 『빨간모자』를 원전으로 한 Janssen과 Hyman의 두 작품에서 글 텍스트는 유사하게 전개되는 반면에 시각적 이미지를 인물, 공간, 플롯, 형태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그림을 읽기 위하여서는 이미지의 상징성 뿐 아니라, 그림의 색, 공간 구도, 배치 등과 같은 예술적 요소와 표현 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술적 요소의 다른 기법으로 글 책과 달리 그림책으로 읽혀지는 작가의 해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서들은 그림책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 독자들에게 해당 도서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의 상징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책 독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출판이 활발해 지고 있으므로, 향후

사서들이 그림책 서평을 작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노명완, 이차숙. 2002. 『문식성 연구』. 서울: 박이정.
- [2] 미래출판전략연구소 편. 2015. 『독자의 도서발견 채널과 국내외 책의 발견성 강화 동향』.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3] 민경록. 2017a. 그림책의 시각적 문식성에 관한 연구: 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23-48.
- [4] 민경록. 2017b. 『어린이그림책 서평의 이해: 어린이그림책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안내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5] 박소라, 김정선. 2011. 시각적 문해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전략.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0: 27-53.
- [6] 서유정. 2015. 동화 『빨간모자』의 다매체적 변용 연구. 『독어교육』, 62: 291-312.
- [7] 송연옥. 2015. 중국의 아동문학상 연구: '전국우수아동문학상(全國優秀兒童文學獎)'을 중심으로. 『中國文化研究院』, 27: 391-410.
- [8] 이유나. 2015. 교사의 발문을 통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방안 탐색: Arnheim의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을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23-51.
- [9] 이차숙. 2013. Arnheim의 시각적 사고 이론에 기초한 그림책의 그림읽기 지도 전략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79(2013): 1-21.
- [10] 주지창, 김광식. 2012. 최근 중국에서의 일본 아동문학에 대해서. 『아동문학평론』, 37(3): 49-53.
-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편. 2015. 『중국 출판교류 활성화 방안』.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2] 현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해』. 2권. 파주: 사계절.
- [13] Drewermann, E. 2010. *Kluge Else & Rapunzel*. 김태희 옮김. 2013.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 심리 읽기』. 1권. 서울: 교양인.
- [14] Hyman, T. S. 1983. *Little Red Riding Hood*. 이진경 옮김. 2013. 『빨간모자』. 서울: 상상의힘.
- [15] Innocenti, R. and Frisch, A. 2012. *The Girl in Red*. 서애경 옮김. 2013.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모자』. 파주: 사계절.



- [16] Janssen, S. 2001. *Rotkaeppchen*. 장순란 옮김. 2004. 『빨간모자와 늑대』. 서울: 마루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oh, Myeong Wan and Lee, Cha Suk. 2002. *A Researching on the Literacy*. Seoul: Pagijong.
- [2] Future Publishing Strategy Lab, ed. 2015. *Reader's Channel for Discovery of Books and the Enhanced Discoverability of Books in Korea and Overseas*.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3] Min, Kyeong Rok. 2017a. "A Study on Visual Literacy for Picture Books: Implications for Librarians Provid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23-48.
- [4] Min, Kyeong Rok. 2017b. *The Comprehension for the Review of Children's Picture Book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5] Park, So Ra and Kim, Jung Sun. 2011. "A Study on the Strategy for Improving Visual Literacy through Reading Pictures in a Picture Looks." *Journal of Art Education*, 30: 27-53.
- [6] Seo, Yu Jung. 2015. "A Study on Multimedia Variations of the Fairy Tale Little Red Riding Hood." *Korean Journal of German Education*, 62: 291-312.
- [7] Song, Yun Ok. 2015. "A Study of Chinese Children Literature Awards: Focusing on the National Excellent Children's Literature Award." *The Journal of Chinese Cultural Research*, 27: 391-410.
- [8] Lee, Yu Na. 2015. "A Study on Teaching Plans for the Reading of Picturebook Pictures Using the Teacher's Questions: With a Focus in Arnheim's Visu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4(3): 23-51.
- [9] Lee, Cha Suk. 2013. "A Study on the Teaching of Picture Reading in Picturebook based on the Theory of Visual Thinking by R. Arnheim."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9(2013): 1-21.
- [10] Zhu, Zi-qiang and Kim, Kwang-sik. 2012. "A Study of a Recent Japanese Juvenile Literature in China." *Criticism of Korea Children's Literature*, 37(3): 49-53.
- [11]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5. *Revitalization of Exchanges with China in the Publication Sector*.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12] Hyun, Eun Ja and Kim, Sae Hee. 2005. *Looking at Picturebooks*, II. Paju: sakyejul.
- [13] Drewermann, E. 2010. *Kluge Else & Rapunzel*. Translated by Kim, Tae Hee. 2013. Seoul:

Gyoyangin.

- [14] Hyman, T. S. 1983. *Little Red Riding Hood*. Translated by Lee, Jin Kyung. 2013. Seoul: Sang-Sang-Eui-Him.
- [15] Innocenti, R. and Frisch, A. 2012. *The Girl in Red*. Translated by Seo, Ae Kyung. 2013. Paju: sakyejul.
- [16] Janssen, S. 2001. *Rotkaeppchen*. Translated by Chang, Soon Nan. 2004. Seoul: Marubol.